

2002 선교 세미나
2강 - 여름 아웃리치 준비

김마가 선교사 (GO 선교회) / 2002. 6. 23

본문: 누가복음 10:1~9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보내시는 장면이다. 제자들을 보내시는 예수님에게서 아웃리치의 몇 가지 원칙을 배울 수 있다.

첫째, 예수님은 가려고 하시는 곳으로 제자들을 먼저 보내셨다.(1절) 대부분의 단기팀은 인기 있는 몇몇 곳으로 아웃리치를 떠난다. 아직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지역(월드A)보다 복음화가 되어 있는 지역(월드C), 복음화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크리스천들이 많이 있는 지역(월드B)에 전 세계 선교의 89%가 집중되어 있다. 우리들도 같은 입장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다. “주님, 우리가 어디로 가길 원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한번쯤 해 봐야 한다. 아웃리치는 출발부터 도착까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야 한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에 대한 경험과 훈련을 하는 것이다. 만약 아웃리치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면 평생을 바꿀만한 일이 일어난다.

둘째, 기도제목을 얻기 위해 가야 한다. (2절) 가장 좋지 않은 단기 사역은 단체 여행처럼 하는 아웃리치다. 가능하면 현지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라. 여러분이 돌아올 때 여러분이 만났던 한 사람의 얼굴을 기억하라. 현지인과 어떤 형태로든지 사랑을 나누라. 그 한 사람을 기억할 수 있다면 그 민족을 위해 계속 기도할 수 있는 힘이 된다. 그 기도는 여러분에게 다시 영향을 준다. 선교는 마치 회개와 같다.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 지금껏 내가 살아왔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로 바꾸어야 한다. 긍휼이 생긴다. 구하게 된다. 그들의 필요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구하게 된다.

셋째, 고난 받고 생명을 잃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야 한다. (3절) 양이 이리 가운데로 가면 잡아 먹히는 것이 당연하다. 선교의 적이 있다면 안전만을 추구하는 것이다.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곳이 몇 곳이나 되는가? 월드 A 지역을 가면 겁에 질려 하는 일이 축소되기 마련이다. 그때 단기 팀이 가서 힘을 줘야 한다. 실제로 복음을 전하다가 잡힌다고 하더라도 큰 일이 일어날 확률은 적다. 오히려 국제적인 영웅이 된다. 담대히 복음을 전하라.

넷째, 축복하라. (4~6절) 여러분은 복의 근원이다.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은 평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크리스천을 만난다. 여러분이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축복의 통로가 된다. 그 사람에게 복을 주라. 말은 알아듣지 못하지만 현지에서 기도하면 이상

한 일이 일어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신다. 어떤 사람은 현지에서 이러이러한 일을 해주겠노라 약속한다. 그러나 그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것은 자신을 의지해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해 축복하라.

다섯째, 여러분의 돈을 쓰려고 하지 말라. (7절) 제일 잘하는 것은 현지인에게 얻어먹고 오는 것이다. 현지인의 집에서 먹고 자는 것이 제일 잘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공급하려고 하지 말라. 이것은 위험하다. 현지인에게 공급 받고 나면 정말로 현지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그 때 공급해줘도 늦지 않다.

* 출처 : 온누리신문